

'한숨 돌린' LG, 다시 상승세? 중요해진 KT-두산 6연전

KT전 3승3패 대등...두산전 2승7패 고전

어려운 상대와 연전...극복해야 재도약 가능

한숨 돌린 LG 트윈스가 다시 한 번 상승세를 탈 수 있을까.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이번 주 일정을 어떤 결과로 마칠지가 관건이다.

LG는 지난주 오르막과 내리막을 동시에 경험했다.

주중 롯데 자이언츠 원정에서는 1승2패로 부진했으나 주말 홈에서 치른 한화 이글스와의 3연전은 모조리 쓸어 담았다.

롯데전은 아쉬움이 짙었다. 특히 16일 경기가 곱잡혔다.

LG는 당시 10-4까지 앞서다 10-15로 뒤집기 패배를 허용, 적지 않은 내상을 입었다.

가뜩이나 7월 들어 고전하던 LG로서는 분위기가 가라앉은 아픈 패배였다.

하지만 주말 들어 반전에 성공

했다. 이번 시즌 절대강세를 자랑하던 최하위 한화를 맞이해 3전승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올 시즌 한화전 9승 무패. 약팀을 상대로 확실한 승수 쌓기에 성공하며 4위로 다시 반등했다.

이천웅이 돌발 부상으로 중도 이탈했지만 이형중, 고우석이 돌아와 감각을 회복 중이고 홍창기, 김호은 등 백업자들의 활약도 이어지고 있다.

타일러 윌슨-케이시 켈리-차우찬으로 꾸려진 선발진 원투쓰리런치도 최근 들어 기세가 좋다.

치선은 이번 주 일정에 쏠린다. LG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한 주이기 때문. 주중에는 KT 위즈 원정 3연전이 예정됐고 주말에는 잠실 맞수 두산 베어스를 상대한다.

LG는 이번 시즌 KT 상대로는 3승3패로 대등하고 두산을 만나서 2승7패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KT의 경우 현재 순위(7위)는 높지 않으나 최근 팀 분위기가 상승세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로하스 등 장타자들이 즐비하고 마운드로 단단하다.

두산전은 고비 중의 고비로 꼽힌다. LG의 천적이다. 이번 시즌 2승7패로 밀리고 있으며 지난해 역시 6승10패로 끌려갔다.

특히 2년전에는 무려 1승15패라는 초라한 맞대결 전적을 남겼다.

어려운 상대들과의 연전이 LG 앞에 기다리고 있다.

8위(롯데), 10위(한화)를 상대한 지난주와는 차원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다행히 다음 주는 다시 수월한 일정을 맞이한다.

주중에는 9위 SK 와이번스 원정기에 나서며 주말에는 홈에서 다시 한화를 상대한다.

LG는 올 시즌 SK를 상대로도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0 프로야구 신한은행 SOL KBO리그 한화이글스와 LG트윈스의 경기에서 LG 오지환이 5회말 무사 1루에서 투런 홈런을 친 후 덕아웃에서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7승2패 압도적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결국 고비로 평가되는 이번 주 일정을 어떻게 마무리할 지가 LG

의 도약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 팬들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 등 '4관왕'

2년 연속 최고의 활약...“팬들이 그리워” 화답



손흥민이 지난 시즌에 이어 올해의 선수에 토트넘 팬들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다.

전 세계를 뜨겁게 만들었던 70m 질주 후 원더골은 '올해의 골'로 뽑혔다. 토트넘은 2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스터와의 2019-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7라운드이자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 3-0 완승을 거뒀다.

경기 후 토트넘은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 '올해의 골', '주니어 회원이 뽑은 올해의 선수', '공식 서포터 클럽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로 손흥민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손흥민은 2년 연속 4관왕에 올랐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도 같은 부분의 수상자였다.

올 시즌 손흥민은 팔 부상과 퇴장 등으로 많은 경기에서 나오지 못했음에도 모든 대회를 통틀어 18골-12도움을 올렸다. 이는 손흥민의 한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이다. 특히 손흥민은 리그에서만 11골-10도움을 기록, 케빈 데 브라위너(맨체스터 시티·11골18도움)에 이어 올 시즌 EPL에서 두 번째로 '10골-10도움'을 달성했다. 리그 21개의 공격 포인트는 토트넘 내에서 가장 많은 수이기도 하다.

지난 시즌 이어 다시 한 번 모든

상을 휩쓴 손흥민은 "팀 동료들과 코칭스태프, 팬들 모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면서 "지난 시즌에는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는데, 이번에는 텅 비어있어 아쉽다. 비록 올 시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어느 자리에서나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팬들이 뽑은 손흥민의 올해의 골은 지난해 12월 번리를 상대로 70m 질주한 뒤 기록한 득점이었다. 당시 손흥민은 토트넘 진영부터 공을 잡아 총 71.4m를 전력으로 질주, 6명을 제친 뒤 득점에 성공했다. 거의 운동장 끝에서 끝까지 내달렸으나 11초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손흥민의 골은 영국 공영방송 BBC를 비롯해 '런던 풋볼 어워즈', 영국 스포츠 매체 '스카이 스포츠', '디 애슬레틱' 등에서 올해의 골로 선정했다.

손흥민은 "환상적인 골이었다. 지금도 가끔 돌려보기도 한다"면서 "득점하기 전 드리블을 할 때 행운이 많이 따랐다. 동료들이 없었다면 멋진 골을 넣지 못했을 것"이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골로 손흥민은 "팬들이 경기장에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보고 싶다. 팬들이 너무 그리웠다"고 말했다.

'뜨거운 감자' 된 올림픽...일본인 4명 중 3명 개최 반대

내년 개막 예정일 맞춰 코로나19 억제 불가능

일본에서 내년에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4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AFP통신은 전날 발표된 교도통신의 3일간 전국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의 23.9%만 내년에 올림픽이 열리는 것을 찬성했다고 전했다.

응답자의 36.4%는 올림픽 추가 연기를 지지했다. 또한 33.7%는 전면 취소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 연기가 취소를 지지하

는 대부분은 내년 7월23일 개막 예정인 올림픽에 맞춰 코로나19 대응이 억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시아신문이 지난 주말 실시한 별도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3%가 내년 올림픽 개최에 찬성했고, 61%는 추가 연거나 취소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지난 3월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일본과 국제 올림픽 관계자들은 더 이상의 연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도쿄에서 최근 일일 신규 감염자 수가 300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재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지난주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올림픽으로 이점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례 없는 보건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고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 '윙어 모 바로우' 영입...“또 최고 팀 뛰게돼 영광”

“탄력·스피드 뛰어나



K리그 4시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전북 현대가 20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출신 윙어 모 바로우(27) 영입을 발표했다. 감비아 출신의 바로우는 스웨덴

의 IFK 노르셰핑, 바베리 BoIS, 외스테르순드 FK 등에서 커리어를 쌓았다. 특히 2014-15시즌 외스테르순드 FK 유니폼을 입고 전반기에만 19경기서 10골 8도움의 준수한 실력을 선보여 EPL 스완지 시티로 이적, 2016-17 시즌까지 활약했다.

이후 바로우는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 레딩 FC로 팀을 옮겨 두 시즌 동안 82경기에 출전, 14골 12도움을 기록했다. 또한 2015년에는 감비아 대표팀에도 발탁돼 8경기 1골을 올린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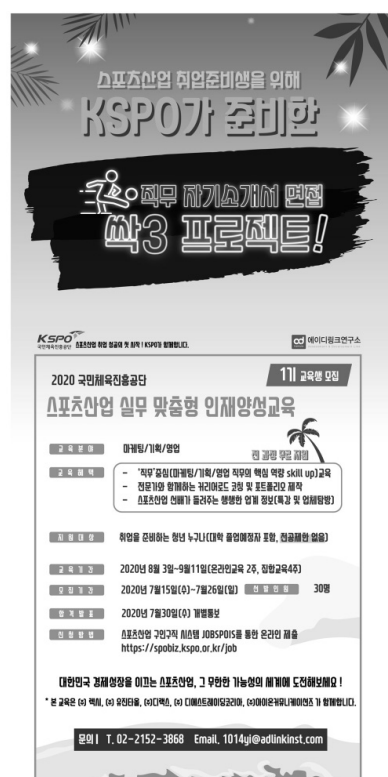
전북은 "탄력과 스피드가 뛰어난 바로우의 합류로 측면의 속도와 공격력을 상승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로우는 "새로운 도전을 아시아 최고 팀인 전북에서 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올해도 팀이 챔피언십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장점을 모두 쏟아 붓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바로우는 지난달 30일 한국에 입국, 2주간의 자가격리를 무사히 마치고 지난 14일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인재 양성교육 위한 업무협약

직무·자기소개서·면접 능력 갖춘 인재 양성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취업과 연계한 스포츠산업 실무 맞춤형 인재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공단은 지난 17일 올림픽공원 스포츠비즈니스홀에서 스포츠기업 5개사와 '스포츠산업 실무맞춤형 인재 양성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스포츠산업 구인난 해소와 취업준비생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추진한 이번 협약식에는 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오장수 본부장(취) 디렉스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공단과 스포츠기업 5개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포츠산업 실무맞춤형 인재 양성교육 관련 기업 특강, 업체 탐방, 교육생 평가, 채용관련 정보 공유 등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쳐 서로 협력할 예정이다.

공단은 직무·자기소개서·면접 '썩3 프로젝트'로 명명한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실무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교육 결과를 향후 인턴지원과정 및 취업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오장수 체육진흥사업본부장은 "본 교육은 단순 직무교육을 넘어 검증된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인재발굴에 꼭 필요한 스포츠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스포츠기업의 고민을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기간은 8월3일부터 9월11일까지 총 6주다. 스포츠산업 분야 전공 상관없이 오는 26일까지 스포츠산업 구인구직 시스템 'JOBSPOTS'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다.

'김광현 경쟁자' 마르티네스, KC와 연습경기 등판

마이크 실트 감독 "미콜라스 선발 등판 가능성 높다"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과 5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카를로스 마르티네스가 2020시즌 개막을 앞두고 마지막 연습경기에 등판한다.

MLB.com은 20일(한국시간) "마이크 미콜라스와 마르티네스가 오는 23일 캔자스시티와의 연습경기에 차례로 등판한다"고 밝혔다.

MLB.com은 "마이크 실트 감독에 따르면 미콜라스가 선발로 등판할 가능성이 높다. 세인트루이스는 미콜라스와 마르티네스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바라지

만 필요할 경우 불펜 투수들도 준비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시즌을 앞둔 세인트루이스는 잭 플래허티, 애덤 웨인라이트, 마이크 미콜라스, 다코타 허드슨 등으로 선발진을 꾸릴 예정이다. 남은 한 자리는 김광현과 마르티네스가 경쟁 중이다.

마르티네스는 지난 18일 팀 자체 청백전에 선발 등판해 3이닝 2피안타 2볼넷 2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마이크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이닝이 진행될수록 더 좋아졌다. 공의 움직임도 많았고 타

자들이 그를 공략하기 어려웠다"며 호평하기도 했다.

김광현 역시 여름 캠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지난 17일 청백전에서 5이닝 1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으로 맹활약했다.

과거 선발로도 활약했던 마르티네스는 지난 시즌 팀 마무리 투수로 24세이브를 올리기도 했다. 기존의 마무리 조연 히스가 최근 2020시즌 불참을 선언하면서 마르티네스가 올해도 마무리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개막 직전 마지막 연습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5선발 경쟁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